

2002년 3월 25일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  
 나는 오늘 너희들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일치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그분께 너희의 마음을 열고 너희의 삶속에 있는 모든 것, 기쁨, 슬픔, 고통까지도 다 그분께 맡겨드려라. 그 시간이 너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여 중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 성체성사와 성모님

미사는 모든 다른 성사들처럼 신비입니다. 이 성사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오로지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학벌이 좋고 스스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고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낀다고 해도 자신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정말 가난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을 향해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하셨기에 성모님은 다시없는 즐거움들을 충만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단순함과 가난함이 존재하는 이곳 메주고리예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시덤불과 뱀들이 살고 있는 그 불품없는 언덕과 광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언덕은 차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도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자동차도 필요치 않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난은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가난입니다. 진정한 메주고리예 발현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관광객 행세를 하는 것

# 메주고리예

Medjugorje

제14호

April, 2002



발행인 : 김한기 시몬 신부 편집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이 아니라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항상 깨어 있으며 단순한 상태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라자밧 산(십자가산)을 여행가방을 들고 올라가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가난은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하나이며 유일한 길은 이천년 전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지는 길이며 이것은 바로 교회의 길이고 성모님의 길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본지 11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 성모님!, 성모님 !!

이영찬 신부

<예수회, 성모공동체 지도신부>

성모님, 성모님, 어는 누구보다도 부르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어머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평화와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성모님!

이 세상에 사실 때 부터 하느님의 구원의 도구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원의 도구로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성모님! 천국에 오르셔셔도 우리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애원하시는 성모님! 무엇이 아쉬워 그렇게도 죄인들을 위해 수고를 하신단 말씀입니까?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돌아서면 제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9년 5월 25일 당신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하느님 안에만 있으며 하느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천상 기쁨과 사랑에는 관심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기쁨, 즐거움, 인간적인 사랑에 몰두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천상 기쁨이 무엇일까? 이것을 진지하게 자문하며 찾는 사람은 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질적 기쁨(좋은 물건들을 갖고싶은 욕구), 육체적 기쁨(맛있는 것, 편한 것,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 등등)과 심리적인 기쁨(성취하려는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남들과 즐겁고 싶은 욕구, 지배해보고 싶은 욕구, 모성애, 부성애 등등) 이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욕구들을 지배하고 극복하려 하기 보다는 그러한 욕구에 사로

(2) MEDJUGORJE

잡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그러한 인간적인 행복보다도 영적인 행복, 하느님 안에만 있고 하느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기쁨과 영적인 행복, 천상 행복, 초월적 행복 등등 무엇이라고 표현하던 이러한 행복을 얻으려 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곳간에서 구세주를 낳으신 성모님!

당신은 마곳간이라는 짐승이 사는 곳에서 구세주를 낳으셨습니다. 여느 여인네 같았으면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비탄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러한 인간으로서는 더이상 비참할 수 없는 불행한 상태에서 당신은 천상 환희에 차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 세상 형편과는 상관없이 천상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곳간이 아니라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고, 물질적으로 조금만 빈궁하거나, 육체적으로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상처를 조금만 받아도 괴로와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모님!

참으로 목주의 환희의 신비 3단, “성모님 예수를 낳으심을 목상합시다.”를 우리가 아무리 목상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상해도 우리는 세상적으로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성모님! 저희의 머리와 마음에 마곳간에서 당신이 누리셨던 천상 기쁨을 심어주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 영적 기쁨 안에 살게하여 주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성모님! 기도하고 단식하며 성서를 읽고 성사생활을 하라고 부탁하시는 성모님! 저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 기도하고 단식하면

저희에게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모님!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고 묵주기도와 단식을 통하여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기쁨 안에 살게하여 주소서.

찾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찾기 보다는 현실의 빵과 욕구들에 눈이 멀어 세상 행복부터 찾게 됩니다. 기도와 단식은 특히 마귀를 쫓아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중에는 좋은 영들도 있지만 나쁜 영들도 있습니다. 그 나쁜 영들 중의 하나가 마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힘으로만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와 단식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뜻하며 영혼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럼으로써 하느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잘오시게 되고, 반대로 안좋은 영은 쫓겨납니다. 기도하고 단식하면 저희에게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모님! 우리가 당신께 의지하고 묵주기도와 단식을 통하여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기쁨 안에 살게하여 주소서.

메주고리예에서 저에게 무엇보다도 감명 깊었던 것은 시나콜로 공동체였습니다. 알콜과 마약으로 저들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새로운 빛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중독자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성모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한 수녀를 통해 성모님께서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에 30여 개 이상의 재활 공동체가 설립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알콜과 마약 중독자들에게 어떤 의약도 쓰지 않고 오직 사랑의 묘약만으로 그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았습니.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중독자들을 사랑만으로 일으킨다는 것은 도구 없이 집을 짓는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마음으로 작은 이들을 특히 사랑하시는 성모님! 당신은 저희가 작은 이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더 테레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몽당연필이 되어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달려들면 그

러한 중독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구원의 수호천사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온전히 제물로 자신을 바치려는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주고리예를 다녀와서 더욱 겸손한 삶을 살려하고 더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많아지기를 염원하였습니다. 메주고리예의 야고버 성당에서의 묵주기도 십오단과 평화를 위한 매일 미사 봉헌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 함께 모여 매 단마다 지도신부들이 자기나라 말로 성모송을 인도하는 모습은 아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말로 성모송을 한 단 주송하였습니다만 서로를 인정해 주는 모습이 참으로 좋아 보였습니다. 메주고리예 순례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많이 알게 되었고 서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고 기도해 주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메주고리예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보다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발현산과 십자가산을 올라갈때 순례단과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눈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은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이기를 바라며 또한 예수님의 고통을 아파하는 눈물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의 십자가가 힘들어서 나오는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이스라엘 여인들을 위로하셨듯이 나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성모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모님 사랑합니다. **M**





# 파우스티나 성녀와 하느님 자비 대축일

April 7, 2002

## 파우스티나 성녀는 누구인가?

파우스티나 코왈스카 성녀는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불리워지고 있는 분으로 신학자들은 교회의 현저한 신비가라고 칭합니다. 성녀는 폴란드에 있는 글로고비에즈 마을에서 신앙심이 깊고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십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독특한 신앙심을 지니고 기도를 사랑하며 인간의 비참함에 민감하였습니다. 그녀는 7살이 되었을 때 이미 수도자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릴 때부터 거룩한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지녔습니다. 1925년 8월 1일 그녀의 나이 20세 때, 성녀는 바르샤바에 있는 "자비의 성모회"에 입회 하셨습니다. 3년 정도의 교육을 받은 그녀는 주로 요리사, 정원사 그리고 문지기 등의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녀의 평범한 모습에서 비상한 신비스런 내적 생활이 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성녀는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고 성실히 수도원의 규율들을 지키며 모든 것을 묵상하며 침묵속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전 생애의 삶은 끊임없이 하느님과 일치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삶과 심한 단식 등을 해 왔기에 수녀원에 입교하기 전부터 그녀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하여 수련기 때 바르샤바 가까이에 있는 스폴리모우에 가서 쉬어야 했습니다. 수련기 첫 해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아주 고통스런 신비의 체험을 했는데 그것은 어둔 밤이었습니다. 그 후 성녀는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제물로 바치면서 무수히 많은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나 완벽한 믿음을 가진 성녀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어마어마한 것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구약시대 때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어 내 백성들에게 천둥과 번개를

휘두르게 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너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 세 내 자비를 보낸다. 나는 인류를 벌하지 않고 치유하여 내 성심으로 데려오고 싶다. (일기 1588).

그녀의 생애 마지막 몇 해는 무저항의 밤을 겪으면서 몸 안에는 병균들이 말할 수 없이 퍼졌고 퍼져 가는 폐결핵으로 허파와 소화기관이 거의 파멸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거의 소멸되어 가면서도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성숙해진 그녀는 거룩한 하느님과 신비스런 일치 하에 1938년 10월 5일 33세를 일기로 수도생활 13년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2000년 4월 30일, 성인 품에 올랐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부활 제2주를 하느님 자비의 대축일로 제정하시고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성대히 거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하느님 자비의 대축일

파우스티나 성녀께 보여주신 모든 하느님 자비신심 요소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이 제정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1931년 폴오크에서 주님의 상분을 그리라고 명하실 때였습니다. 나는 하느님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 바라고, 네가 붓으로 그릴 이 상분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이 자비의 축일이 될 것이다. (일기 49)

부활 후 첫 주일을 자비의 축일로 제정하신 데는 깊은 신학적인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은 파스카 신비의 구원과 하느님 자비의 신비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관계가 더욱 강조됨을 나타내는 것은 이 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올리는 9일 기도가 성금요일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 결혼을 앞둔 비스카와 함께

비스카와 마리조 (Marijo) 는 올 1월 26일에 있을 결혼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스카가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의 학교' 를 구현하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해주며 성모 성심을 진실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비스카의 기도와 증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치유된 사례는 허다합니다. 그 중 한 예로 런던에서 온 엘리자벳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작년에 나는 청소년 대회 때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성모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습니다. 나는 진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며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결코 무의미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메주고리에에 관한 책은 읽어본 적도 없이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성모님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 스스로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어느 누구의 증언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주고리에나 증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카페에서 보내며 철저한 외로움을 느끼며 울면서 배회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발현산으로 묵주의 기도를 하러 갔으나 나는 묵주도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또 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기도 같았으며 그것을 한다고 하느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밀의 마을을 거닐고 있었는데 증인중 한 사람이니 비스카를 그녀의 정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비스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으므로 그녀가 비스카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증인 중 한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길 건너편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금방 울음을 터뜨리고 말

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녀처럼 빛과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을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햇불처럼 빛났으며 나는 급히 길을 건너 그녀의 정원 한구석을 서성거리며 마치 천사나 성모 마리아를 보듯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록 그녀와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 성모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과 메주고리에가 성스러운 곳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벳은 요근래 메주고리에에 다시와 그녀의 삶이 성모님의 학교와 메시지로 인하여 변화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하느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보이지 않는 안개를 걷어가 주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데니스 노란 (Denis Nolan) 과 나는 비스카를 방문하였습니다. 여기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분을 실어봅니다. (나는 비스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관해 가지고있는 교리학상의 깊은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 질문 : 비스카, 당신이 선택한 이 결혼에 대한 인생의 항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비스카 :우리는 매 번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대비하여 그 대답을 마음속 깊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저는 20년간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하느님께 응답하여 왔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복되신 어머니를 위하여 했습니다. 지난 20년 저 혼자 해왔고 지금도 아무것도 변한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제가 이 일을 가정 안에서 할 것이라는 것 뿐이지요. 하느님께서서는 제가 성가정, 즉 하느님을 위한 가정을 갖기 바라십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람들에게 대해 커다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본보기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결혼을 택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여

러분이 가야할 행로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당신의 삶에서 우선으로 하며, 또한 기도를 우선하며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결혼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며 공허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입니까? 하느님을 위한 사랑이 그 첫째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 당신과 함께 살아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항로에서 여러분은 장미꽃 인생 내지는 안이한 이생을 기대하여서는 안됩니다.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할 경우 참회하며 당신의 마음을 다형 하느님께 바쳐야 합니다. 매일 하느님께 그날의 모든 것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느님을 제일 중요한 분으로 모시며 그분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우선으로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당신은 물론 당신과 함께할 그 어떤 사람도 같이 말입니다.

**질문 : 결혼하고도 계속 메주고리에에 살것인가요?**

비스카 : 저는 이곳에서 약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살 것이나 매일아침 이 장소에 올 것입니다. 저의 임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 속해있는지 알려 그것또한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문 : 당신은 마리쵸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에 대하여**



본지 편집인 남그레고리오 형제와 함께한 비스카의 밝은 미소

**말해줄 수 있나요?**

비스카 : 제가 그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사이에 확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는 진실

되게 기도하며 선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하지요. 우리의 관계는 아주 좋으며 사랑이 우리 사이에 있으며 그러면서 점차 더 쌓아 나갈 것입니다.

**질문 : 비스카, 어떻게 한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할지 알 수 있나요?**

비스카 : 기도로서 확실히 알게되지요.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틀림없이 답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좋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재촉하거나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이 남자가 나의 남자다' 하고 서둘러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며 하느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성급히 결정을 내린 뒤 잘못된 일이 생기면 '하느님, 왜 그러셨어요? 이 남자는 나에게 맞는 남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인내심이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욱 인내하며 하느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더욱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여야 합니다. 일단 결혼상대를 찾았는데 만약 그 어느 한쪽이 그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 혼자 사는것이 더 편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 자체를 마음에 두고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눈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하시고  
시간을 낭비하지않게 해 주십니다.  
이 시기는 은총의 시기이며 .....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면서 은총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은총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좋은 의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애물을 우리 스스로가 없애야 합니다. 자유롭고 아닌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만 내 자신도 하느님께 협조하며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고 말하여야 합니다.

**질문 : 비스카, 당신의 성모님께서 당신의 결혼에 대해 조언을 부탁한 적이 있나요?**

비스카 : 저도 다른 이들과 똑같습니다. 하느님은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전심을 다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하셨다면 모든 것이 너무 쉬울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커다란 내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비스카는 결혼문제를 성모님께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에 관해서는 성모님께 질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질문 : 비스카, 많은 이들이 독신으로서 하느님께 봉사하는 당신을 이 메주고리에의 '이상형' 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군요. 그들에게 전할 말은 무엇인가요?**

비스카 : 지난 20년은 하느님께서 저를 독신으로서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상형' 으로 보여졌다면 지금도 변할것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이를 하나의

본보기로 정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의 부름에 대답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느님이 저로하여금 성가정 꾸리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느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본보기이며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 삶 안에서 우리는주위의 사람이 무엇을 하나 보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하며 자기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저를 지난 20년간 독신으로 살기 원하셨으나 지금은 다르게 원하고 계시므로 저는 그것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응답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하느님께서서는 모범 가정의 표본을 필요로 하시며 저는 성모님께서 제가 그 표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증거를 다른 사람의 본보기를 통해서 찾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개인적인 부름을 들으므로써 그 표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나 하고싶은 것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조금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갈때에 우리가 잘못살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시간은 이미 흘러갔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한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눈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보게하시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 시기는 은총의 시기이며 우리의 선택을 잘 결정하여 우리가 선택한 행로를 매일 매일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어머니 당신의 사랑의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느님과 더욱 더 깊은 관계를 갖게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M**



〈표지에서 이어지는 내용〉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 요한 보스꼬 성인께서는 ‘풍랑에 시달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가는 두개의 안전한 다리요, 정거장은 성체성사와 성모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완전하게 겸손하셨던 성모님을 닮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스꼬 성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모님과 성체성사는 우리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에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부자같은 모습이 아닌 진복팔단의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믿음으로 예수님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M**

**이 ‘결혼 봉헌 기도문’ 은**

“거룩한 사랑의 안식처 (Refuge of Holy Love)” 로 오시는 성모님과 함께 오하이오에 발현하신 예수님께서 1996년 2월 2일에 주신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모성심과 예수성심’의 하나된 성심에게 바치는 이 결혼 봉헌 기도문을 주는 것은 요즈음 시대 때문이다. 나의 승리의 재림 전, 이 마지막 날들에 사탄이 모든 성소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특히 사제성소와 결혼성소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봉헌된 결혼들의 길은 순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보호와 섭리를 위해 이 기도를 매일 바치도록 하여라.”

“이 봉헌을 널리 퍼지게 하여라. 이 봉헌에는 많은 은총이 따를 것이다. 진부한 결혼의 영혼에 힘을 줄 것이다. 가슴에 열정을 일게 할 것이다. 회심하지 않던 이들도 이 기도를 바치기로 동의하면 회심하게 될 것이다.” **M**

**결혼 봉헌 기도문**

거룩하고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결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봉헌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당신의 승리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하나되어  
 당신의 보호와 섭리를 구합니다.  
 우리가 매 번 숨쉴 때마다  
 당신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서로를 위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증가하게 하소서.  
 영원하신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우리의 가슴에  
 제왕의 옷처럼 걸쳐주소서.  
 당신의 하나되신 성심 안에서,  
 그 성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 거룩해지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더욱 가까이

브라이언은 1997년 5월 27일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차가 방향을 잃어 길에서 벗어나면서 옆에 있는 전봇대를 쳐 사고가 났다. 몸 하나 다치지 않았지만 완전히 망가진 차에서 빠져 나오는 도중에 길에 깔린 전기줄을 밟아 감전되어 죽었다. 그때 브라이언의 나이는 17세였다. 세상을 떠나기 두 달 전, 학교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천국의 그 방’ 이라는 에세이를 썼다. 모어(Moore) 가족은 이 에세이를 가족사진 옆에 걸어놓고 “하느님께서 브라이언을 도구로 무엇인가를 전하시는 것” 이라고 믿고 이 글을 남들과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아들의 죽음을, “우리는 브라 이언을 축하합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있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였다.

## 천 국의 그 방

**꿈** 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공간 어떤 방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 한쪽 벽 전체가 아주 작은 인덱스 카드 (작은 메모카드) 들로 된 서류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도서관에 책들이 제목과 저자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과 꼭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사면으로 끝이 안보이게 쌓여 있고 전부 다른 머리말들이 적혀 있었다.

서류들이 있는 벽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제목은 “내가 좋아하던 여학생들” 이라는 글이었다. 나는 얼른 그것을 뽑아 뒤적이기 시작하다가 놀라서 닫았다. 그 안에 써 있는 여학생들의 이름은 내가 다 아는 이름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한것까지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 생명체 없는 방안에 있는 서류들은 숨김없이 내 생애를 기록해 놓은 시스템이었다. 여기 적혀있는 것들은 내 삶에서 매 순간 일어났던 크고 작은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것으로 내 기억력을 월등히 초월하였다.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이 나를 휘젓는 가운데 닥치는 대로 서류들을 열면서 그 안에 내용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것은 아주 기쁨과 행복한 추억을 불러

일으켰고 어떤 것은 창피와 후회속에 누가 뒤에서 보지나 않나 하고 뒤를 돌아볼 정도였다. “친구들” 이라는 서류 다음에는 “내가 배반한 친구들” 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상하게 제목들은 아주 가벼운 것으로 시작하여 불가사리한 것으로 정돈되어 있었다. “읽은 책들” “거짓말한 것들” “위로를 준 것들” “나를 웃겼던 유모어들” 어떤 것들은 너무나 정확하여 웃음이 터졌다. 예를 들면 “내가 동생들에게 소리 지르던 일들” 그러나 어떤 것들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다. “화가 났을 때 저지른 일들” “부모님들께 대한 반발을 입속으로 중얼거리던 말들” 나는 이 내용들에 대해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서류 속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목록들이 들어 있었고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적게 들어 있었다. 나는 내가 이처럼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이처럼 수만 수억 가지의 일들을 살아가면서 써 내려갔단 말인가! 그러나 각 목록들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것들은 틀림 없는 나의 필적이고 내 싸인이 적혀있었던 것이다. “내가 본 TV 프로그램들”을 꺼냈을 때는 그 서류가 너무나 크게 늘어나 거의 2미터 가량 늘어 놓았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창피하여 얼른 덮었다. 그 프로그램들의 질에 대해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 소비한 그 긴 시간에 대해서였다. “음행의 생각들” 이라는 서류에 다달았을



때, 내 온 몸에 냉수를 끼얹은 기분이었다. 나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내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정말 그 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소름이 끼쳤고 세상의 이런 순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역겨웠다. 짐승처럼 사납게 화가 치밀기 시작하였다.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아무도 이 카드를 보아서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도 이 방을 보면 안된다. 완전히 파괴시켜야된다. 나는 이 서류 안에 있는 카드들을 다 태워 버려야 된다고 다짐하면서 서류 한 끝을 쥐고 털어냈지만 그 어떤 카드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결사적으로 그 카드들을 뽑아 내려고 했지만, 강철처럼 강하게 붙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완전히 패배하고 희망을 잃은 채 그 서류를 제 자리에 도로 꽂아 놓았다. 이마를 벽에 다 박으면서 자신에 대한 처참함 속에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내가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앞에 박혀 있었다. 그 손잡이는 주위의 어느 것 보다 빛났고 새것이며 사용하지 않은 것이었다. 내가 그 손잡이를 잡아 당겼더니 3인치 정도 되는 작은 상자가 내 손안에 떨어졌다. 손안에 떨어진 카드들은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카드들이었다. 눈물이 뺨을 적시며 나는 울기 시작하였다. 너무 흐느끼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다. 뱃속에서 시작하여 온 전신이 흔들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서류들이 꽂혀있는 선반들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보니 빙빙도는것 같았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방을 알면 안된다. 이 방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감출것이라고 굳게 다짐한다. 그 때 그 순간 나는 그분을 뵈었다. 오 안돼요. 이곳에서는 절대 안돼요! 오 다들 괜찮아도 예수님만은 안돼요! 나는 완전히 절망적인 처지가 되어 그분께서 서류를 여시면서 그 카드 하나 하나를 읽으시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분의 반응을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갖은 힘을 다 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분의 표정은



나의 표정보다 더욱 슬퍼보였다. 그분께서는 직관적으로 가장 험악한 상자로 가시는 것이었다. 왜 모든 카드 하나 하나를 다 읽으셔야만 하는가? 드디어 그분은 저 방 끝에서 나를 바라보셨다. 그분은 아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 바라보시는 눈은 나를 조금도 화나게 하지 않으셨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다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대성 통곡을 하였다. 그분께서 내 앞에 오시어 나를 감싸주셨다. 그분은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으나 한 말씀도 안하셨다. 그냥 나와 함께 울어주셨다. 그리고 일어나시어 다시 서류들이 꽂혀있는 벽으로 가셨다. 방 끝에서부터 시작하시어 다시 서류 안의 카드를 하나 하나 꺼내어 그분의 이름을 적으시는 것이었다. “안돼요” 나는 소리지르면서 뛰어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안돼요, 안돼요” 라고 하면서 카드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었다. 그분의 이름이 절대로 이 카드에 적히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은 아주 굵고 진한 빨간색으로 숨쉬듯 살아있게 적혀 있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이름을 덮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피로 썼던 것이다. 그분은 부드럽게 다시 카드를 내 손에서 가져 가셨다. 그분은 조금 슬픈 미소를 지으시면서 다시 싸인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분께서 얼마나 빠르게 이

많은 카드를 다 싸인하셨는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순식간에 싸인을 다 끝내시고 내 곁으로 다시 오셨다. 나는 일어났고 그분께서는 나를 인도하여 그 방을 나오게 해 주셨다. 이 방은 자물쇠가 문에 달려있었다. 아직도 쓸 카드들이 남아있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 필립비 4:13- ”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여 주셨다. - 요한 3:16- ”







##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읽기를 위한 길잡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로의 가장 원숙한 작품입니다. 20년 동안의 사상과 활동, 수난과 체험에서 우러난 잘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두 서간은 가장 혈기왕성한 때 기록된 것이며 바울로 자신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자신의 전도 활동을 완성했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복음서 다음으로 가는 후대의 그리스도교 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친 신약의 저술서로 꼽힙니다. 이 두 편의 바울로 서간은 주제가 동일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나날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편의 편지는 그것들이 기록된 각각의 주변상황이 서로 다른 까닭에 분위기와 구성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원후 55년경 열이 오른 상태에서 씌어진 것이 분명한 갈라디아서는 바울로가 약 5년 전쯤 자신이 직접 신앙으로 이끈, 개종한지 얼마 되지않은 갈라디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혼란하고 위협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을 때 제시된 답변으로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답고 심오한 대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문체는 고르지못하고 감정적인 편입니다. 바울로는 어떤 때는 논리를 전개하고, 어떤 때는 호소하며, 또 어떤 때는 질책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보낸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 동일한 주제를 더 자상하고 초연한 자세로 다루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로가 찾아가보고 싶어 했지만 결국 한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 보낸 것으로 갈라디아서보다 대략 1년 정도 늦게 씌어졌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먼저 쓴 갈라디아에서 분노와 비탄속에서 둘러 돌아보았던 위대한 진리들을 차분하고 질서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서가 한결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논리 전개가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갈라디아서의 개요

1) 1장 1절-10절 : 인사와 질책 (바울로는 자신의 개인적

(12) MEDJUGORJE

권위를 재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자기 복음의 핵심을 진술.

2) 1장 11절 -2장 21절 : 바울로가 자신의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변호하며, 율법준수 보다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되게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해 준다는 것을 가르침.

3) 3장 1절 -5장 12절 : 믿음과 율법의 역할

4) 5장 13절 -6장 10절 : 육정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열매.

5) 6장 11절 -18절 : 전체 요약과 자필 인사.

### 로마서의 개요

로마서는 서간 중, 가장 마지막에 씌어진 책으로, 어느 서간보다도 체계적으로 씌어진 서간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AD33년 개종 후 58년에 이르기까지 세차레의 전도여행에 대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총정리하여 로마교회로 써 보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당대의 로마인 뿐만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근본을 분명히 알고 그 신앙을 생활화 하는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1) 1장 1절 -15절 : 하나님 복음의 내용 (바울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기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2) 1장 26절 -3장 20절 : 하나님의 의로움(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곤 했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

3) 3장 21절 -31절 : 의화(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지는 결국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가치를 받아들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남을 고백)

4) 4장-16장 : 바울로 사도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될때까지의 신앙과 구원의 역사를 논함. 여기에서의 구원은 할레나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의인이 되어 구원받았음을 강조. 이어서 여러가지 은사들 중 교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사랑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라고 치켜세우고 제각기 받은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권고함.

**성서읽기표**

- 1) 매번 읽기전에 “주의 기도, 성모송” 으로 시작기도를 바치며 마칠때는 “영광송” 을 바친다.
- 2) 매일 꾸준히 읽는다 (읽은 날은 Check 를 한다.)
- 3) (가능하면)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읽는다.
- 4) 그날의 말씀에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 이 있으면 하루의 “화살기도” 를 만들어 바친다.

**이달의 성서 읽기표 (2002.1.15-2.14)**

날짜	요일	장 절	check
4/8	월	갈라디야 1장	
9	화	2,1-10	
10	수	2,11-21	
11	목	3장	
12	금	4장	
13	토	5장	
14	일	6장	
15	월	로마서 1,1-17	
16	화	1,18-32	
17	수	2,1-11	
18	목	2,12-29	
19	금	3,1-20	
20	토	3,21-31	
21	일	4장	
22	월	5장	
23	화	6장	
24	수	7장	
25	목	8,1-17	
26	금	8,18-39	
27	토	9,1-18	
28	일	9,19-33	
29	월	10장	
30	화	11,1-24	
5/1	수	11,25-36	
2	목	12장	
3	금	13장	
4	토	14장	
5	일	15,1-13	
6	월	15,14-33	
7	화	16장	

읽기표 대로 성서 쓰기를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깨끗하며 맑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찬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천대받는  
가난한 이들의 모습 안에 계신  
그분께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선교회 수도자들이 바치는 기도>



## 제 6 처

# 마리아, 요셉을 여의시다.



- 어머니, 당신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모범이 되셨고 아드님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당신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 말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 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 주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태 1.19-21.24>

(14) MEDJUGORJE

### 새김

어머니, 사랑했던 사람, 말없이 바라보며 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의인 요셉을 먼저 떠나 보내며 당신이 지니셨던 슬픈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당신은 삶의 반려자였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냥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 드릴 수 있으셨던 것입니까? 참으로 의인이었던 요셉이 하느님 나라에 갔으리라는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슬픔은 참으로 크셨을 것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삶의 반려자도 다만 함께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지,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오로지 하느님 그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 기도

어머니, 저도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요셉을 먼저 떠나 보내며 당신이 지녔던 슬픔을 기억하면서 당신에게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언젠가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을 믿으며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당신 상처 깊이 새겨 주소서. **M**



새 ■ 로 ■ 나 ■ 온 ■ 책

## 성모마리에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류해욱 지음 / 최봉자 그림

지난 봄 성주간에 메주고리에 성모발현 성지를 순례하게 되었다. 그곳에 함께 갔던 어떤 부부가 내게 “신부님, 성모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청하였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혼자 생각에 머물던 ‘성모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면서 놀라우면서도 기뻐했다.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을 늘 은혜로운 체험이다. - 류해욱 신부 서문 중에서 -

예수회 소속 류해욱 신부가 글을 쓰고 최봉자 수녀가 그림을 그렸으며 <<성사와 함께>> 출판부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미주 및 캐나다 지역 판매 및 문의처 :

**평화의 모후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남 그레고리오 :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 2월에 도움주신 분들

김한기 신부  
박명근 신부  
제13차 순례단 일동

**뉴욕 :** 윤멜라니오, 임베로니카, 신동배, 장누갈다  
손테레사, 김세실리아, 최안나, 문루시아  
이모니카, 베이사이드 교우

**필라델피아 :** 황형권, 뉴타운 평화의 모후 기도회

**VA :** 성준경 부부, 김안나, 김연화, 김미리안나

**한국 :** 한세레나, 박마리아, 황스테파노

**LA :** 김철석 부부, 김상배 부부, 장테레사

**GA :**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성, 정아네스

**캐나다 :** 이엘리자벳, 이준영 부부, 황마리아

**이태리 :** 성모님의 종

컴퓨터를 기증해 주신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메주고리에 순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안내 여행사의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세계로 여행사 : 02-3482-5775

명 보 여행사 : 02-737-2850

성 모 여행사 : 053-639-0211

진 주 여행사 : 02-738-0747

마리아 센 타 : 02-723-5425

금수강산 여행사 : 02-745-2222



## 그것이 부르심이었나?

이창재 요셉 부제 / 부제협의회 회장

고교시기에 저는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삼총사로 학교와 본당에서 늘 함께 지내며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갑내기요 한 친구는 다른 중학 출신인데 선배와 자취하던 것을 그만두고, 아예 저의 집으로 들어와 제 방에서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다른 친구는 같은 중학에 다녀서 알고는 있었으나 고교에서 한 반이 되면서 셋이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친구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주말에는 함께 미사에 참석하고 영세 준비를 하며, 영세할 때는 저의 본명을 따라서 모두 요셉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예비자 학교에서 한 친구는 합격하여

요셉으로세례를 받았으나, 다른 친구는 낙방하여 그 다음에 영세하게 되었는데 본명을 베드로라 하여 저희 두 사람에게 배신자(?)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본당 출신의 대신학생 한 분이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방학에 내려오면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과 교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후에 사제가 되어 훌륭한 목자로서 사신 분인데, 이 분이 그때 저를 특별히 보시고 성소와 신학교에 관하여 간곡히 말씀한 것이 어제같이 선명합니다. 짐작하건대 6.25 때 순교하신, 저를 아들처럼 사랑하던 본당 신부님께서도 그때까지 살아 계셨다면 제게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이라면 털어놓고 솔직한 제 속사정을 모두 이야기 했으련만.... 이렇듯 그때 저는 사제의 길이 아니라 사상가의 길로 가고자 해서 신학교가 아니라 철학과를 선택하고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그러나 철학 강의실에 들어가서 결국 (16) MEDJUGORJE



느낀 바는 실망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 설정한 강좌를 아무리 들어보아도 삶과 유리된 공허한 말과 논리의 잔치라는 생각이 들어 저를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저의 가톨릭 신앙과 조화된 철학 강의를 대학 강의실에서 찾지 못한 저는 제 나름대로 책을 구해 읽으면서 위대한 사상은 독창적으로 창조할 수 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다짐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추구는 실로 연목구어(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 생애의 방향은 시

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대학강좌를 떠나서 읽었던 것은 주로 Neo-Thomism (신 토마스 철학)과 우리 교회의 사회교서 관계서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가톨릭 신앙과 조화된 사회적 실천 사상을 추구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점차 가톨릭 사회 개조운동 내지는 가톨릭 사회주의운동 방향으로 접어들었다고 회상됩니다. 여전히 저는 전국 가톨릭 학생 총연합회에서 포교부장으로 활동하며 지도신부의 총애와 더불어 선배들의 격려와 동료들의 성원도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 총련은 CCK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사무국장 신부가 지도신부이고, 총재는 노기남 대주교, 고문은 장면 박사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외적 활동은 화려했으나 내면에서의 사상적 방향과 갈등은 여전한 가운데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워 2학년에 등록을 포기(휴학)하고, 고향에 잠시 돌아와 과수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M**

<다음호에 계속>







## 내 삶속의 메주고리에 성모님

- 허혜경 안젤라 / 의정부 성당 -

메주고리에 다녀온 2001년은 30여년의 길지 않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 특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설레임과 성모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은총에 대한 믿음이 이후의 제 삶의 방향을 찾게 해 주었으니까요.

제가 6살 때 엄마의 이끄심에 우리 가족 모두 세례를 받게 되었고 가톨릭의 절차에 따라서 10살 때 첫영성체를 모셨습니다. 고된 생활속에서도 열심히 성당 활동을 하시는 엄마를 통해 어린 맘에도 막연히 예수님이 좋았고, 성모님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을 장사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정들었던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여러번 이사도 해야 했고 몸과 맘이 지쳐서인지 그나마 우리 가정의 신앙적 주체가 되어주셨던 엄마마저 냉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선 너무나 미약한 저를 가정을 지키는 작은 신앙의 불씨로 썩 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러워 벗어나고만 싶은 세계 '우정' 이라는걸 알게 해 준 친구들을 보내주셨고, 그 친구들 또한 같은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일이면 혼자서라도 성당으로 인도해 주심은 물론이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들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터전 또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역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신자였기에 우린 양가의 축복과 은총으로 혼배성사를 받을 수 있었고, 너무나 사랑스런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신앙인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저를 힘들고 지치게 했습니다. 때마침 본당에서 견진 교리가 시작되다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못한 채 매일 주어진 숙제를 하듯이 강박관념속에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않고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기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주님께선 이런 기도를 들어

주시기는 하실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웬지 묵주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즈음 전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얼마 전 메주고리에 다녀오신 부모님, 특히 아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과연 메주고리에 무엇이 아빠 스스로 묵주를 들고 매일 기도하게 하셨을까? 엄마를 저토록 평안하게 해 주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이 좀 자라고나면 언젠가 가 봐야겠다' 란 생각만 한 채 엄두도 못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계신 이모에게서 갑작스런 전화가 왔습니다. "안젤라, 성모님이 널 부르시니 아무말 말고 메주고리에 오렴" 저는 반가운 마음과 당황스런 마음이었습니다. 5살과 돌쟁이 아들을 두고 11일간 집을 비우기란 쉽지않은 결정이었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기꺼이 아이들을 맡아주셨고 남편의 전폭적인 배려에 힘입어 모든 걱정들을 접어두고 훌가분하게 성모님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막상 혼자 떠나려고 보니 모든 것이 두렵고, 일행을 잘 만날 수는 있을까 걱정하며, 인천 공항행 버스에 몸을 싣고, 성모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데, 인천 공항에서 만나기로 한 그 일행을 같은 버스에서 만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우연으로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구나' 하며 감사했습니다.

메주고리에 정말 고요하고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분명 이곳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 눈으로도 보고 어머니를 체험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씩 걸었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별빛을 받으며 맨 처음 십자가산에 오르면서, 빨리 무언가를 느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맨발로 무작정 올랐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날카롭게 솟구친 돌을 디딜때마다 쾅한것을 하고있는건 아닐까? 혼란스럽고 갑갑해졌습니다. 온전히 주님과 어머니께 향하지 못한 제 맘을 다스리며 얼마의 시간을 보낸 후, 십자가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간절히 당신을 청합니다.' 수없이 되뇌이며 13층에 까지 왔을 때 묵주마저도 두 알을 남겨둔채 제 맘처럼 영켜버렸습니다. 날도 어두워 보이지도 않아 풀 수도 없었습니다. 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모든 두려움마저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니게 해 주세요" 그때, 피범벅이 되어 죽으신 당신의 아



드님을 품에 안고 목놓아 통곡하셨을 어머니의 고통이 새삼 제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고통이 아닌 어머니의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지금껏 내 기도는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머리와 입으로만 하는 암송에 불과했었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늘 내곁에서 함께 하셨건만 그 어머니와 맘을 나누지도 못하면서 보여달라고 투정만 부렸던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며 통회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다보니 날이 서서히 밝아왔고 영켰던 묵주도 쉬 풀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올라가면서 도착한 일행들과 함께 성가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안젤라야 나를 사랑하느냐 ~ 오! 성모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 그때 마침 하늘에선 어머니의 기쁨의 눈물인양 빗방울이 살포시 내렸고, 전 감동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이제는 성모님의 현존하심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성모 어머니는 제게 당신의 존재를 자주 드러내 주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한 장미향으로 당신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곳서 알게된 언니와 둘이서 한밤중에 길을 잃고 헤메일땐 처음 보는 강아지를 통해 낯선 집 앞 성모님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며, 메주고리예를 떠나오는 날엔 당신의 아쉬운 맘을 전해주시려는 듯 아침부터 빗물을 뿌리시더니 이내 커다란 무지개가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느님과 땅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것이다” 라고 하셨듯 우리에게도 그 계약의 표징을 주셨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던



지 모릅니다. 또한 이번 순례의 지도신부로 오신 왕영수 신부님을 통해 미사의 의미와 복음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으며, 특히 성령의 신비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미국, 한국, 거주지는 달라도 주님 안의 우리 모두 한형제이고 자매였기에 90명이 넘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헤어질땐 아쉬운 마음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가끔 그때 함께했던 몇몇 분들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현재, 뜻을 같이하는 몇몇 젊은 친구들이 메주고리에 피자방 (Cafe.daum.net/medjupissa)을 만들어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지낸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한번쯤 이 방에 들어오셔서 서로 인사 나누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는 메주고리예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신앙생활의 틀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느끼는 주님의 사랑, 성모 어머니의 평화를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어머니가 그토록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하느님 보시기에도 좋으실거라 믿기에, 나의 이웃에게도 어머니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에 동참하

려 합니다. 당신의 작은 도구로나마 쓰여지기를 바라며..... 메주고리에 소식지가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주시면 열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288번지 동화 APT, 101동 2008호 / 허혜경 안젤라 (전화 : 031-878-7362 또는 017-757-3535)



## 책을 통하여 만난 메주고리에 성모님

- 캐나다 켈거리의 이데레사 -

사랑의 주님, 평화의 성모님, 제 삶의 모든 것이 되심에 찬미와 영광 사랑 그리고 저의 전부를 돌려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에게 세례의 은총이 있었고 세례를 통하여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 더 이상의 그 무엇도 바랄 수 없는 은총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순백의 산하가 따뜻한 기온 탓으로 서서히 녹아 내리며 새하얗고 깨끗함이 모두 사라진 지저분하고 추함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아마도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며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되새기게 됩니다.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면서 늘 살아서 함께 하시는 인격체로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려 노력해 보지만 일상의 조그마한 사건들

을 통하여 너무나 자주 주님을 속이고 뒷전으로 몰아내며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당신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잊어버리고 사는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참아내며 기다려 주심을 확인하며 힘을 얻곤 합니다. 지나고 보니 주님의 온전한 섭리에 의한 가정이 이루어 졌고 혼자가 아닌 남편과 함께 둘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들과 잔잔한 평화와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앞에서 주님을 삶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띄고 있을 때..... 주님은 성모님을 저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의 너무도 부족하고 약함을 성모님을 통하여 재취 주시기라도 하시려는듯이..... 세례 후 많은 세월들을 성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느낌도 없었던 저의 불완전한 신앙에 성모님께서는 제가 늘 느끼며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이 아빠도 아닌 엄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확신 시켜주며 저에게 참 어머니로써 다가 오셨습니다.



(20) MEDJUGORJE





그 즈음 성모

님의 사랑이 유난히 깊으신 자매

님을 만나게 해 주셨고 그 만남은 우리 가족에게 성모님의 사랑에 제대로 눈을 뜨이게 해 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성모님께의 봉헌과 의탁 기도생활들은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로 저희 가족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약혼을 앞둔 순결한 약혼녀의 청초하고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저의 뇌리에 각인된 성모님의 모습, 막연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던 성모님의 실체를 접하게 되는 계기를 우연히 여행지에서 메주고리에 책자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고 처음 만난 형제에게 무조건 돌려드릴 것을 약속하고 빌려온 책에서 성모님과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이 깊어 질수록 메주고리에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은 심해지고 안타까움이 더해가는 중에 성모님께서는 저의 안타까움에 응답을 하시듯 새로운 책들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두번째의 책을 읽으면서 임신 중이었던 저희는 태중의 아기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책에 쓰여있는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바치는 기도와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를 임신 기간 내내 기도하며 성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령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전에는 왜 하필 세례명이 마리아일까? 라고 생각 했었는데 이제는 마리아란 세례명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으로 원하던 딸 아이를 낳고서 마리아 데레사란 세례명으로 유아세례 후 성령기도회에 가서 성가를 부르며 춤을 추고 손뼉을 치는 성령의 딸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새로운 성모님의 돌보아 주심에 늘 감사하며 성모님의 사진을 구하여 나누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아는대로 성모님을 전하던 중 웨인 와이블 씨의 세 권의 저서를 읽게 되었고 너무 좋은 것을 저희 부부만 가지고 있음이 안타까워 한국방문 중에 60권의 책을 구입하여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천주교회 친지들과 성모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개신교의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성모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마음껏 나눌 수 없는 여건에 아쉬움이 크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성모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러므로 성모님의 부르심에 조금이라도 응답해 드리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중에 성모님께서는 저희의 작은 노력을 너무도 커다란 사랑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 남편에게 피정을 통하여 메주고리에에 다녀온 체험자들이 썼던 글에서나 느꼈던 감동들인 장미향기를 통해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는 선물로 주셨답니다. 메주고리에 하면 떠오르는 그리움과 감동들..... 여건이 허락치 못하여 아직도 그리움으로만 기다리고 있는 그 곳. 성모님의 짝이신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성모님. 보지않고 믿는 자는 진복자라는 성서의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며 저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넘치고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에 벅찬 감동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가족을 새로이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악의 영향으로 위기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성모님께 봉헌하오니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모님께서 위기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모님의 원의가 구석 구석에 널리 전파되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녀들이 늘어나서 현세에서 천국을 사는 삶이 이루어 지도록 성모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성모님의 주님께 대한 사랑처럼 저희 모두도 사랑의 삶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평화를 일구어 내는 사랑의 작은 사도로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모님 사랑합니다. **M**



ENGLISH EDITION OF

# Queen of Peace

Monthly Message from Medjugorije  
February 25, 2002



Message of the Holy Father  
to the Youth

St. Faustina and  
Divine Mercy

Testimony and  
Conversion story



“Dear children ! In this time of grace, I call you to become friends of Jesus. Pray for peace in your hearts and work for your personal conversion. Little children, only in this way will you be able to become witnesses of peace and of the love of Jesus in the world. Open yourselves to prayer so that prayer becomes a need for you. Be converted, little children, and work so that as many souls as possible may come to know Jesus and His love. I am close to you and I bless you all.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Message of the Holy Father  
to the Youth of the world**

February 25, 2002

1. I have vivid memories of the wonderful moments we shared in Rome during the Jubilee of the Year 2000, when you came on pilgrimage to the Tombs of the Apostles Peter and Paul. In long silent lines you passed through the Holy Door and prepared to receive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then the Evening Vigil and Morning Mass at Tor Vergata were moments of intense spirituality and a deep experience of the Church; with renewed faith, you went home to undertake the mission I entrusted to you : to become, at the dawn of the new millennium, fearless witnesses to the Gospel.

By now World Youth Day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your life and of the life of the Church. I invite you therefore to get ready for the seventeenth celebration of this great international event, to be held in Toronto, Canada, in the summer of next year. It will be another





chance to meet Christ, to bear witness to his presence in today's society, and to become builders of the "civilization of love and truth"

2.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Mt 5:13-14) : this is the theme I have chosen for the next World Youth Day. The images of salt and light used by Jesus are rich in meaning and complement each other. In ancient times, salt and light were seen as essential elements of life.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One of the main functions of salt is to season food, to give it taste and flavour. This image reminds us that, through Baptism, our whole being has been profoundly changed, because it has been "seasoned" with the new life which comes from Christ (cf. Rom 6:4). The salt which keeps our Christian identity intact even in a very secularized world is the grace of Baptism. Through Baptism we are re-born. We begin to live *in Christ* and become capable of responding to his call to "offer [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acceptable to God" (Rom 12:1). Writing to the Christians of Rome, Saint Paul urges them to show clearly that their way of living and thinking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ir contemporaries: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Rom 12:2).

For a long time, salt was also used to preserve food. As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called to preserve the faith which you have received and to pass it on intact to others. Your generation is being challenged in a special way to keep safe the deposit of faith (cf. 2 Th 2:15; 1 Tim 6:20; 2 Tim 1:14).



Discover your Christian roots, learn about the Church's history, deepen your knowledge of the spiritual heritage which has been passed on to you,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witnesses and teachers who have gone before you! Only by staying faithful to God's commandments, to the Covenant which Christ sealed with his blood poured out on the Cross, will you be the apostles and witnesses of the new millennium.

It is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especially youth, to seek the Absolute, the meaning and fullness of life. Dear young people, do not be content with anything less than the highest ideals! Do not let yourselves be dispirited by those who are disillusioned with life and have grown deaf to the deepest and most authentic desires of their heart. You are right to be disappointed with hollow entertainment and passing fads, and with aiming at too little in life. If you have an ardent desire for the Lord you will steer clear of the mediocrity and conformism so widespread in our society.

- excerpt from [www.vatican.va](http://www.vatican.va) - (continue on next month)

## Divine Mercy

### *Who is Saint Faustina?*

Saint Sister M. Faustina Kowalska is known today the world over as the "Apostle of the Divine Mercy." She was the third of ten children born into a poor and pious family in Poland. When she was only seven, Faustina already sensed in her soul the call to embrace the





religious life. From her childhood, she desired to become a great saint, and she consistently strove toward the goal, working together with Jesus for the salvation of lost souls, even to the extent of offering her life as a sacrifice for sinners. Therefore, her life as a religious was marked with the stigma of suffering, but also with extraordinary mystical graces.

At the age of twenty she entered the Congregation of the Sisters of Our Lady of Mercy as Sister Maria Faustina. It was to this religious, who though simple, and boundless trust in God, that Jesus directed that amazing declaration, *In the Old Covenant I sent prophets wielding thunderbolts to My people. Today I am sending you with My mercy to the people of the whole world. I do not want to punish aching mankind, but I desire to heal it, pressing it to My Merciful Heart.* (Diary 1588)

Worn out and weakened by tuberculosis and the sufferings she bore in sacrifice for sinners, Saint Faustina died in the odor of sanctity in Krakow on October 5, 1938 at the age of 33.

### The Essence of the Divine Mercy Devotion

1. **Trust** expresses the disposition we should have toward God. It is simply the attitude of a child who trusts boundlessly in the merciful love and omnipotence of the Heavenly Father in every situation. Trust is so essential to the Divine Mercy devotion that without it the devotion cannot exist. Jesus promised, *to grant unimaginable graces to those souls who trust in My mercy (687). Let them approach this sea of mercy with great trust. Sinners will attain justification, and the just will be confirmed in good. Whoever places his trust in My mercy will be filled with My divine peace at the hour of death* (1520)

2. **Mercy** expresses the disposition we should have

towards every human being. Jesus told the saint, *I demand.. deeds of mercy, which are to arise out of love for Me. You are to show mercy to your neighbors always and everywhere. You must not shrink from this or try to excuse or absolve yourself from it. I am giving you three ways of exercising mercy toward your neighbor: the first-by deed, the second-by word, the third-by prayer. In these three degrees is contained the fullness of mercy and it is an unquestionable proof of love for Me. By this means a soul glorifies and pays reverence to My mercy* (742).

### The Feast of Divine Mercy

*I desire that there be a Feast of Mercy I want this image, which you will paint with a brush, to be solemnly blessed on the first Sunday after Easter: that Sunday is to be the Feast of Mercy ."* (Dairy 49)

*I desire that the Feast of Mercy be a refuge and shelter for all souls, and especially for poor sinners. (Dairy 699) Souls perish in spite of My bitter passion. I am giving them the last hope of salvation, that is recourse to My mercy. If they will not adore My mercy, they will perish for all eternity.* (Diary 965, 998)

In order to receive these promises, we must fulfill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Confession.** Repent of all sins a total conversion of heart to be truly sorry for our sins.
2. Receiving the Eucharist on the Feast of Mercy. Jesus promised, *whoever approaches the fountain of life (Holy Communion) on this day will be granted complete forgiveness of sins and punishment.* (Dairy 699)





## Testimony

*One of the guests at Vicka and Mario's wedding, Teresa from Sicily (62 years old) had this to share with us:*

"I am the twelfth of 14 children. My father used to curse God and beat my mother and us children. We were often hungry and had to sleep 3 to a bed. When I was 9 years old, I received the call to become a nun, but my father would not allow it because he wanted me to work in order to help the family. Later I got married and became lukewarm in my faith. My husband didn't believe much, but we went to Mass on Sundays". "In 1998, I had to have a hysterectomy due to cancer of the uterus, followed by chemotherapy and radiation. A few months later: breast cancer, another operation, followed by radiation. Then my husband became very ill and I had to take care of him, until his death two years ago. Completely exhausted, I had to have further tests. This time, I was diagnosed with liver cancer. My whole body was suffering and I was vomiting constantly. I decided to go on a retreat at San Giovanni Rotondo, in the former parish of Padre Pio, to put my life in order for the months that I had left to live. I was suffocating under so many hardships. The doctors wanted to do a third operation, and I had to make a decision. "The first night at San Giovanni, June 21, 2000, I had a strange experience, which I thought was a dream, but I wasn't sure. I found myself in the waiting room at the hospital, waiting my turn to be called for the operation. The door opened and a young woman entered. It was a nurse wearing a white uniform. She had her brown hair in a pony tail. She came straight towards me saying, 'You can leave now, you're cured'. Shocked and surprised, I stuttered that I couldn't leave because I had come to have an operation. She repeated: 'Yes! You can leave, you've been cured.' Again, I told her: 'There must be a mistake, because I'm scheduled to have an operation.' Then with an authoritative voice,

she told me: 'But I've told you that you are cured !'" "The next morning, this 'experience' still had hold of me. I spoke about it to a priest who told me: 'We'll see with time if it's true or not. Meanwhile, you yourself have to make the choice to have the operation or not.' I decided to not have the operation. In fact, during that same night the pain had completely disappeared. I was able to start eating normally again, I gained weight, I was able to sleep, to walk, just like someone in good health. An enormous strength had come into my whole body. And I forgot to say that my first thought upon awakening from the dream was Medjugorje : 'I must go to Medjugorje!' I was seized with an intense desire to go there, and yet I didn't really know anything about Medjugorje: a small isolated village in Bosnia-Herzegovina, some apparitions to young shepherds... That's all I knew! The retreat at San Giovanni Rotondo was a time of resurrection for me, and I decided to change my life, to put God in the first place. After the retreat I looked for a means to go to Medjugorje, and finally in Sicily, I found a pilgrimage organized for New Year's. I was also invited to participate in a prayer group on Thursday evenings to meditate on the messages from the Queen of Peace. Each message went straight to my heart and filled me more and more with joy."

"Once I arrived in Medjugorje, I was impressed by the grace of the site, even on the first day while praying the Stations of the Cross on Mount Krizevac. The next day we went to listen to Vicka. When I saw her, I said to myself, 'I've already seen her face somewhere, but where?'"

"Then it came back to me in a flash, the scene of the night at San Giovanni and I exclaimed, 'It's her! That's the young woman in white who came to tell me, 'you can leave, you are cured!' I was amazed and I looked at the light radiating from her eyes, the rays of love





coming from her face. Later I had the opportunity to tell her about that night when she came to visit me, and she only said to me, smiling: 'Thanks be to God!' 'My life is now taken up with an apostolate in Sicily and prayer retreats in Medjugorje. I know that the Gospa has a plan for me through the healing and the freedom that was given to me. My joy is to be her instrument for whatever she has in store for me.'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Teresa's witness, this simple, discreet woman, full of fire, who is now among the apostles of the Gospa. The intervention by Vicka in the depths of her distress shows that we don't have to run after the visionaries, but rather be open to God and to let our life be changed. In order to help us, God actually has millions of angels, He never runs out of grace or imagination to help us or to visit us. Why did He choose Vicka for Teresa that night? We can't answer that question, but fortunately we can give thanks!

#### **Epilogue by Sr. Emmanuel**

The Blessed Mother told us in her last message:

*"At this time while you are still looking back to the past year I call you, little children, to look deeply into your heart and to decide to be closer to God and to prayer."*

It's true we could be tempted to keep looking back and be focused on evil and its consequences. The Enemy wants us to be stuck there, and this would be a new victory for him. Here are a few words that we

(26) MEDJUGORJE

gathered from Vicka on the catastrophe of September 11th in New York:

Vicka : "You know, we shouldn't be afraid of anything. The Lord didn't want to give us a shock. We have to look at things with different eyes. God wanted to give us a lesson. All of us, when something ugly happens, something terrible, we tend to let despair come in.

Actually, we must be ready, because for 20 years the Gospa has been calling us, telling us that through fasting and prayer we could prevent wars, stop wars. We've got to be ready! In our families we should think more about God and then all the rest will fall into place. But today we have forgotten God. He has been delegated to the second place, or worse, He doesn't exist anymore in our families. Therefore, we need to change! May the Lord truly be in the first place then all the rest will follow. We shouldn't be afraid. It is not God who wants to bombard us or harm us. No, God wants to save us! He wants to help us! Through the sign in New York, He wants us to wake up! Gospa, also, only wants to give us hope and confidence."

We know how Vicka cares for those who suffer. In putting God back in the first place, let us not allow such a tragedy to ever happen again!

**Dearest Gospa, it is in your embrace that we find refuge!**

**Sr. Emmanuel**

© Children of Medjugorje 2002



# 5월 메주고리에 피정 순례

2002년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8박 9일)

- 5월 24일(금) New York, JFK공항 출발.
- 25일(토) 메주고리에 도착, 석식, 투숙.
- 26일(일) 발현산 순례 (환희,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 한국어 미사  
오리엔테이션 및 순례객 인사, 피정강의, 지도사제와의 대화  
St. James 성당에서 저녁예절 및 미사.
- 27일(월) 십자가산 순례기도 (14처 기도), 성가 찬양, 피정 강의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성시간.
- 28일(화) 목격증인 비스카와의 만남, 오아시스 수도원 방문, 청십자가에서 기도와 묵상  
기도로 치유되는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성시간.
- 29일(수) 시로크브리예로 출발, 티할리나에서 한국어 미사, 요조신부님과 만남  
치유예절, 성 야고버 성당의 저녁예절.
- 30일(목)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한국어 미사  
부활십자가 및 슬라브코 신부님 묘소 방문, 성가찬양, 나눔의 시간.
- 31일(금) Dubrovnik으로 출발,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및 순례  
석식 및 Hotel 투숙
- 6월 1일(토) New York JFK 도착.

지도 신부 : 표신천 임마누엘 (밀워키 본당 주임) 신부

신청 마감 : 2002년 3월 30일 선착순 마감

순례 경비 : US \$1,350 NY JFK출발 기준

\$1,350 캐나다 출발 기준

(비행기 예약 관계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여권 소지자는 보스니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므로 여권과 여권사진 1매, 영주권 사본 및 신청서와 비용 US\$80(특별 우  
편료 포함) 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미주 평화의 모후센터(남 그레고리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Fax.(631)367-6194)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예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 소식지 구독과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질 취 선 -----

##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있는 메시지들이 실천되기 위하여 너희 모두가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구나 -1995년 2월 25일자 성모님의 메시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감을 갖고 하느님의 나라를 넓혀갑시다.

성명 한글 :	영문 :	세례명 :
주소(지택) :		
e-mail 주소 :	소속본당 :	
전화번호 : 집	직장	팩스번호
납입금 종류 :	<input type="checkbox"/> 월후원금 (            ) <input type="checkbox"/> 3개월 (            ) <input type="checkbox"/> 6개월 (            ) <input type="checkbox"/> 1년 (            ) <input type="checkbox"/> 수시로 (            )	
Pay to : Queen of Peace Center U.S.A.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보내실 곳 (Mail to) :		
USA :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한국 : 허혜경 안젤라/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288번지 동화 APT, 101동 2008호 / Tel : 031-878-7362 or 017-757-3535		